

退·高四七論辨 試論**

馬 振 鐸*

• 目 次 •

- | | |
|------------------------------------|-----------------------------------|
| I. 序 論 | 2. 四端之發純理七情地發亦氣說 |
| II. 李·奇의 四端理氣之辯의 始末 | 3. 四端主理七情主氣說 |
| III. 李退溪의 理氣로써 四端七情을
分說한 思想的 演進 | 4. 四端理發氣隨七情氣發理乘說 |
| 1. 四端理發七情氣發說 | IV. 李退溪의 理氣로써 四端七情을
分說한 이론적 的의 |

I. 序 論

이퇴계(1501~1570)와 奇明彦(1527~1572)의 四端七情이 理氣에 分屬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에 관한 논쟁은 朝鮮理學史上 하나의 유명한 논변이다. 수년간에 걸친 논쟁은 이퇴계로 하여금 朱子가 간혹 말한 적은 있었으나, 지금까지 朱子의 후학들이 주의하지 않았던 「사단은 理의 發이요, 칠정은 氣의 發이다.」라고 한 두마디는 체계적으로 理氣를 사단칠정으로 分說하는 이론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였다. 李·奇의 논변은 退溪가 독자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심성학설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퇴계의 본체론과 수양론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퇴계의 심성학설의 형성과 발전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러한 논쟁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63·64호(1989) 게재논문

본문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문제의 서술을 통하여 李·奇의 四七理氣의 논변에 대한 초보적인 논술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 李·奇의 四端理氣之辯의 始末
- 이퇴계의 理氣로써 사단칠정을 分說한 사상적 演進
- 이퇴계의 理氣로써 사단칠정을 分說한 이론적 의의

Ⅲ. 李·奇의 四端理氣之辯의 始末

李·奇의 논변은 퇴계가 정식으로 朱子思想을 받아들인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鄭之雲의 <天命圖>와 <天命圖說>을 수정하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일어났다. 柳成龍의 <퇴계先生年譜>에 의하면, 퇴계는 <天命圖>와 <圖說>을 수정하는 작업에 참가한 일은 1553년에 발생했으며, 퇴계의 나이 53세 때였다. 퇴계 자신은 <天命圖說後叙>에서 정지운은 퇴계가 漢城에 寓居할 때의 이웃에 살았었지만, 그들이 이웃에 산 지 20년간은 오히려 서로 알고 지내지 못했다고 했다. 정지운은 성명의 이치는 은미하여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朱子의 性命之說을 취하여 그는 <天命圖>를 지어서 자기의 연구에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말했다. 퇴계는 우연한 기회에 <天命圖>를 얻어 읽어 본 후 틀린 곳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다.

정지운을 알게 된 후, 퇴계는 솔직하게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아울러 <天命圖>의 수정에 참여하였다. 天命圖의 舊圖에서는 원래 「사단은 理에서 發하고, 칠정은 氣에서 發한다」는 두 귀절이 있었으나, 퇴계는 「사단은 理의 發이며, 칠정은 氣의 發이다」라고 수정하였다. 이렇게 한번 고친 내용은 본래의 큰 취지와는 관계가 없으나 오히려 뒷날 李·奇의 논변의 도화선이 되었다. 5년 후, 1558년 이퇴계보다 나이가 26세나 아래인 奇明彦은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았으며, 한양에서 그는 퇴계를 방문하였다. 퇴계는 이 대면후 오래지 않아(이틀 뒤)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기명언은 아마 퇴계가 漢陽을 떠난 후에 퇴계가 수

정한 <天命圖>와 <天命圖說>을 보고는 퇴계가 고친 두마디, 즉 「사단은 理의 發이며, 칠정은 氣의 發이다」는 말과 理氣로써 心의 虛靈을 分說한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여겼다. 얼마되지 아니하여 기명언의 이러한 비평을 퇴계가 듣게 되었다.

1559년(己未)에 퇴계는 기명언에게 보낸 서신에서 「또 士友들을 통하여 四端七情之說에 대해서 논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도 지난번 저의 해설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부적절함을 스스로 병폐로 여기고 있던 중입니다. 지적하고 논박하여 주시니 더욱 그 거칠고 잘못된 점을 알겠습니다. 곧 아래와 같이 고쳐 보았습니다. 四端之發은 순리이므로 善하지 않음이 없고, 七情之發은 氣를 겸하였으므로 善惡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병폐가 없을지 모르겠습니까?」¹⁾

기명언은 퇴계의 수정이 「비록 前說보다는 약간 나은 것 같으나, 여전히 타당치 못하다고 여겼다. 그는 <非四端七情分理氣辯>을 지어 퇴계의 관점에 대해서 비평을 가하고, 퇴계의 관점은 사단칠정을 대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理氣의 관계를 분리시켰다고 지적하였다. 문장 속에서 기명언은 자기의 사단칠정에 대한 견해를 말하였으니 사단은 喜怒哀樂 등의 情 가운데 뽑아낸 것으로 善한 情에 속하기 때문에 사단은 「칠정의 밖에서 나올 수 없으며 바로 칠정 가운데서 發하여 절도에 맞는 단서이다」²⁾라 하였다. 기명언의 <非四端七情分理氣辯>은 정식으로 李·奇之辯의 서막을 열었던 것이다.

기명언은 <非四端七情分理氣辯> 중에서 이퇴계에 대한 비평과 李의 사단칠정에 대한 기본관점에 관계함으로써 퇴계로 하여금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1560년³⁾ 퇴계는 <論四端七情第一書>를 지어 자신이 理氣로써 사단칠정을 分說한 관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기명언이 말한 「칠정 외에 다시 사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 대

1) 《陶山全書》續內集 卷21, <與奇明彥> (己未)

2) 上同, <非四端七情分理氣辯>.

3) 柳成龍, 《退溪先生年譜》 嘉慶 39年: 「11月 答奇高峯書辯四端七情」. 그러나 《陶山全書》에서는 <答奇明彥論四端七情 第1書>를 己未年에 排列하였음.

해서 사단칠정은 비록 똑같은 情이지만, 사단칠정의 「所從來」, 즉 그 근원처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비록 理氣는 相須相待하지만, 사단과 칠정이 發하는 가운데에서 理氣의 지위와 작용은 다르기 때문에 사단이 「主로 하는 바와 중시하는 바」는 理이고, 칠정이 「主로 하는 바와 중시하는 바」는 氣이다. 그러므로 이퇴계는 이러한 의미에서 사단은 理의 發이며, 칠정은 氣의 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第一書>중에서 이퇴계는 또 《朱子語類》로부터 자신의 관점이 되는 하나의 근원을 찾았으며, 그는 이러한 관점에 의거 자신이 理氣로써 사단칠정을 分說하는 것은 완전히 정확하여 당초 정지운의 <天命圖>에서 「사단은 理에서 發하고, 칠정은 氣에서 發한다」는 두 말은 또 본래 잘못된 점이 없으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다. 이퇴계는 또 기명언이 자신의 理氣분리술에 비판을 가한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여 기명언은 「같은 것은 기빠하고 떨어지는 것은 싫어하니 樂渾論은 분석을 싫어한다」고 여기고 아울러 나아가 기명언의 관점은 羅欽順이 理氣를 一物이라고 본 氣一元論 사상과 서로 가깝다고 생각했다.

기명언은 이퇴계의 <論四端七情第一書>를 접수한 후, 다시 <論四端七情第二書>를 지어 이퇴계의 <論四端七情第一書>에 대해 한 단락씩 반박을 가했다. 기명언은 자신과 이퇴계의 分岐는 理氣관계에 대한 이해상의 표현뿐만 아니라 더욱 心·性·情 등의 문제의 표현에 있어서도 「아마 心·性·情의 글자가 제대로 배열되어 있어서 더이상의 글자를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기명언은 자신과 이퇴계의 分岐의 소재를 밝혔다. 理氣관계에 대해서 기명언은 퇴계가 사단은 中에서 純理가 되어야 비로소 發하여 氣에 물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理는 때로는 氣를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점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天命圖>에서 사단을 理의 범위에 놓고, 칠정을 氣의 범위에 놓은 것은 理氣를 분리하여 둘로 삼은 것이다. 心·性·情에 관해서 기명언은 心은 곧 理氣의 합이요 사단칠정은 모두 心에서 나왔으

니, 그 나온 바로부터 말한다면, 마땅히 모두 理氣를 겸해야 하니 사단은 순수하게 理發에 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즉 「별도로 하나의 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理에서 나왔으나 氣를 겸하지 않을 뿐이며」⁴⁾ 동시에 情이란 「오로지 氣만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⁵⁾라고 지적하였다. 기명언은 이퇴계의 氣質之性은 치우쳐서 유독 氣를 가리켜 말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제기하였는데, 그의 관점에서 보면, 氣質之性을 性이라고 말하지만, 오로지 氣를 지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論四端七情第二書>중에서 기명언은 《朱子語類》에서 「사단은 理의 發이요, 칠정은 氣의 發이다」라는 이 말에 대해 대담하게 회의를 표시하였으니, 이는 朱子가 우발적으로 치우쳐서 가리킨 말로서 이를 理氣로써 사단칠정을 구분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기명언의 <論四端七情第二書>를 접수한 후, 이퇴계는 또 <論四端七情第二書>를 지었다 그는 《第二書》에서 겸허하고 도량이 큰 진정한 학자로서의 풍도를 표현했으며, 먼저 자신의 <論四端七情第一書>에 대해서 일곱 군데를 수정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정은 「이것은⁶⁾ 모두 理氣가 相成하는 가운데 치우쳐서 유독 홀로 氣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는 말을 「이는 理氣가 相成하는 가운데서 理氣를 겸하되 주로 氣를 말한 것이다」는 말로 고친 점이다. 이러한 수정은 퇴계가 이미 기명언의 자신에 대한 비평을 접수하고 나서 표명한 것이다. <論四端七情第二書>중에서 이퇴계는 자신과 기명언의 앞의 일단의 변론에 대해서 귀납하여 총체적 결론을 내렸는데, 二人의 관점 사이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내었다. 퇴계는 자신과 기명언의 같은 점은 그들이 모두 「사단은 氣가 없는 것이 아니고, 칠정은 理가 없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며, 다른 점은 퇴계는 사단칠정은 「비록 똑같이 情이지만, 所從來를 퇴계는 다름이 없지 않다」고 보았으나, 기명언은 오히려 四端

4) 《陶山全書》續內集 卷第21, <論四端七情 第2書>

5) 上同

6) 孔子가 말한 「性相近, 習相遠」의 性과 孟子가 말한 耳目口鼻之性도 氣質之性이라고 함.

칠정의 所從來는 다름이 없다고 여겼다. 사단칠정은 「나오는 바의 다름이 없지 않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서 퇴계는 「대저 理가 發하면, 이에 氣가 따른다는 것은 理를 주로 해서 말한 것일 뿐, 理 밖에 氣가 없음을 말한 것은 아니니, 사단이 이것이요, 氣가 發하면, 이에 理가 탄다는 것은 氣를 주로 말해서 한 것일 뿐 氣밖에 理가 없음을 말한 것은 아니니, 칠정이 이것이다」라는 유명한 理氣之發說을 제시하였다.

이퇴계가 <論四端七情第二書>를 지은 후, 기명언은 또 서신을 보내서 반박하였다. 그러나 이퇴계는 단지 기명언이 보내온 편지에 간단한 회답을 했을 뿐, 그는 더이상 오랫동안 내버려두었던 논쟁을 진행할 뜻이 없었던 것 같다. 기명언과 이퇴계는 나이와 명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매우 크며, 이퇴계의 인간됨이 謙虛和氣하고 도덕이 고결하여 상대방과의 변론 중에서 勢로써 사람을 압도하지 않았지만, 봉건시대의 학술 분위기에서 이러한 대등하지 못한 논쟁의 최후의 결과는 가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에 그들의 논쟁은 기명언이 자신의 논점을 포기함으로써 결말을 맺었다.

기명언은 <四端七情後說>과 <四端七情總論> 두 글에서 자신의 과거에 사단칠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없어서 관점에 치우친 곳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단칠정은 理氣에 分屬하니 자연히 의심할 필요가 없다」⁷⁾고 하였다. 기명언은 자신의 관점을 포기함으로서 이퇴계의 칭찬을 받았다. 1566년에 퇴계는 기명언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단칠정의 총론과 後說 두 편은 談論이 지극히 명쾌하여 얽히고 번잡함을 일으키는 병폐가 없으며, 안목이 매우 정확하여 능히 홀로 근원을 보고 있으며, 또 능히 아주 작은 것에서도 舊態 탈을 판별할 수 있고 의연히 옛것을 고치고 새로운 뜻을 좇으니, 이는 더욱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말하였다. <重答奇明彦>중에서도 퇴계는 「만약 이전의 明見崇論이 이제 兩說의 通透脫灑함과 같다면, 또 어찌 끝에 가서 차이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7) <陶山全書> 續內集 卷23, 四端七情後說.

표면상으로 보면, 李·奇의 사단칠정의 논변은 기명언이 자신의 관점을 포기함으로써 종결되었지만, 사실상 이·奇的 分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기명언은 <後說>중에서 「모두 칠정이 發하면서 절도에 맞는 것을 말한 점은 사단과 실재는 같으면서 명칭은 다르다는 점을 말한 것이니, 역시 아직 理를 害하지 않는다는 말을 의심한다」고 굳게 지켰다. <總論>중에서는 칠정이 사단에 배합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모두 그 자신의 기본관점을 진정으로 포기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기명언과 이퇴계의 이론의 分岐 역시 결코 아직은 진정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分岐는 朝鮮理學 이후의 발전과 학파의 분화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Ⅲ. 이퇴계의 理氣로써 四端七情을 分說한 思想的 演進

사상은 논쟁하고 切磋琢磨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표면상으로 보면, 이퇴계와 기명언의 사단칠정에 관한 논쟁은 기명언이 자신의 관점을 포기함으로써 종말을 고하였고, 이퇴계는 이러한 논쟁 중에서 크게 全勝을 거둔 것 같지만, 사실상 이퇴계는 논쟁 중에서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여 자신에게 본래 결함이 있었던 관점을 끊임없이 충실하고 완전하게 만들었다.

이퇴계가 理氣로써 사단칠정을 分說하는 사상은 이 논쟁 중에서 4가지 형태로 크게 고쳐지게 되었다.

1. 四端理發七情氣發說

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四端理之發과 七情氣之發」은 이퇴계가 53세 때에 정지운의 <天命圖>와 <天命圖說>을 수정할 때 제기된 것이다. 이는 그가 理氣로써 사단칠정을 分說한 최초의 형태이다. <四端理發七情氣發說>과 朱子の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이라는 이 語錄은 완

전히 부합된다. 퇴계 자신의 說法에 따르면, 그는 뒷날에 朱子語類를 읽고서 비로소 우연하게 이 語錄을 보게 되었다. 이 때문에 <四端理發七情氣發說>의 중요한 점은 鄭靜而의 <天命圖>의 「사단은 理에서 發하고, 칠정은 氣에서 發한다」는 뜻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점이다.

<四端理發七情氣發說>은 분명히 이퇴계가 理氣로써 사단칠정의 이론을 分說하는 일종의 성숙되지 않은 설법이다. 이 설법 역시 얼마 전에야 비로소 朱子사상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이퇴계가 朱子の <理氣說>과 <心性說>의 이해에 대하여 해석상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朱子の <理氣說>은 지금까지 「천하에는 아직 理 없는 氣가 없으며, 또 아직 氣 없는 理도 없다」⁸⁾는 理氣의 相卽不離를 강조하였다. 理氣는 형상형하요, 體用이며, 所當然과 所以然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 처해 있는 理氣는 월등하게 獨發할 수 없다. 純然한 理發 혹은 純然한 氣發이란 그 이론의 전제는 단지 理氣는 각각 一物이 될 수 있다는 점뿐이다. 사실상 이퇴계는 <天命圖>를 수정할 때, 역시 理氣를 확실하게 갈라놓은 경향이 있었다. 「吾人の 心은 虛(理)하고 또 靈(氣)하여, 理氣의 舍屬이 되니, 이런 까닭으로 그 理는 즉 四德之理로서 五常이 되고, 그 氣는 즉 二五(陰陽五行)之氣로서 氣質이 된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갖추고 있는 바는 모두 하늘에 근본한 것이다. 그러나 五常이라 함은 純善이요, 無惡이기 때문에 그 發한 사단은 역시 善하지 않음이 없으며, 氣質이 本然之性이 아니기 때문에 그 發하는 칠정은 邪惡에 흐르기 쉽다」⁹⁾ 이퇴계는 여기에서 지나치게 理氣의 分別을 강조하였다.

2. 四端之發純理七情之發亦氣說

1559년에 이퇴계는 기명언이 <四端理發七情氣發說>을 비평한 것을 안 뒤에 이 說을 제시하였다. 이 說은 분명히 <四端理發七情氣發說>에 理氣를 분리시킨 결함이 존재함에 대해서 지은 수정 보완이었다. 그러

8) 《朱子語類》 卷1.

9) 《陶山全書》 續內集 卷第8. <天命圖說>

나 퇴계의 수정은 철저하지 못하였으니, 그는 아직도 「四端之發純理」라는 한 부분은 보류하여 두었다. 이퇴계는 仁義禮智는 中에서 純理가 되어 「비로소 發하는」 찰나에는 아직 氣에 물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朱熹의 理氣관계 학설에 따르면, 理가 발가벗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純理之發이란 있을 수가 없다. 기명언은 <論四端七情第二書>에서 「사단은 中에서 純理가 되어야만 비로소 發하여 氣에 물들지 않는다」, 「실제로 선생의 스스로 얻은 바이다」라고 말하였다. 明彦의 말에는 조소하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이퇴계의 급소를 찢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四端主理七情主氣說

四端之發은 純理이고 七情之發은 氣를 겸하였다는 說 역시 기명언의 비평을 받은 후에 퇴계는 <論四端七情第一書>중에서 또 <四七分主理氣說>을 제시하였는데, 二者(四端七情을 가리킴)는 비록 날마다 모두 理氣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所從來로 인하여 각각 그 主로 하고 중시하는 바(「與所重」三字는 뒤에 삭제함)를 가리켜 말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은 理가 되고, 어떤 것은 氣가 된다는 말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四七分主理氣說>은 앞의 兩說에서 理氣를 분리하는 경향을 수정하여 말하길 「대개 理는 氣와 더불어 본래 相須를 體로 삼고, 相待를 用으로 삼았으니, 왜냐하면 아직 理 없는 氣도 없고, 氣 없는 理도 없다」, 「理가 相卽不離한다면 확실히 純理之發과 純氣之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사단칠정은 그 所從來를 궁구하고 그 向上根源을 추구해보면, 모두가 당연히 理氣가 합하여 발한 것이지만, 합하여 발하는 가운데는 主가 있고 次가 있음으로써 理發이 主가 되는 것이 四端이며 氣發이 主가 되는 것이 칠정이다. 그래서 이퇴계는 四端之發은 氣가 아닌 것이 없으며 七情之發은 理가 아닌 것이 없다고 여겼다.

<四端主理七情主氣說>이 비록 理氣를 분리시킨 결함을 보충하였다고 하지만 역시 새로운 문제인 즉 理氣主次문제가 발생하였다. 朱熹의 이

문제에 관한 관점은 理氣가 비록 일시적으로는 모두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理를 주로 하게 되고¹⁰⁾, 「理는 氣의 主이다」¹¹⁾라는 점이다. 이퇴계는 本體論의 측면에서 理氣主次의 관계를 토론할 때 마땅히 朱子の 「理는 氣의 主이다」라는 사상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예를 들면 <天命圖說>에서 말하길 「理는 氣의 우두머리이며, 氣는 理의 卒이다」라고 말한 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性情문제 중의 理氣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마치 다른 면에서의 고려로 말미암아 그 는 때때로 氣로써 主를 삼는 것 같다.

4. 四端理發氣隨七情氣發理乘說

이 說은 이퇴계가 <與奇明彥論四端七情第二書>가운데에서 제기하여 내놓은 것이다. 이 說의 특징은 첫째, 理氣를 相卽不離하고, 또 결코 一物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둘째, <四端主理七情主氣說>에서 主氣主次 관계를 전도시킨 결합을 보충하였다. 「理發氣隨」이나 「氣發理乘」이냐를 막론하고 모두가 理로써 主를 삼는다. <四端理發氣隨七情氣發理乘說>은 이퇴계가 기명언과 서로 결합되기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사상은 이미 기본적으로 朱子の 사상과 일치됨을 표명하였으며, 朱子學派가 조선의 주요 대표적인 인물의 사상을 성숙시켰다는 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四端理發氣隨七情氣發理乘說>은 朱子の 理氣動靜과는 또한 약간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理發動靜」문제에 있어서 朱子는 氣에는 動靜이 있으며, 理는 바로 氣가 動靜하는 所以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理가 氣 중에 있음으로 해서 氣의 動靜 중에도 動靜의 理가 있다는 것이다. 朱子는 항상 理氣의 動靜문제상의 이러한 관계를 비유하여 말하길 「사람이 말을 탄다」 「理가 陰陽을 타는 것은 사람이 말을 타는 것과 같다」¹²⁾ 「태극은 理요, 動靜은 氣이다. 氣가 행

10) 《朱文公文集》 卷第49, 答王子合.

11) 《朱子語類》 卷94.

12) 上同.

하면 理도 행하니, 이 둘은 항상 서로 의지하여 일찍이 서로 떠나는 일이 없다. 태극은 사람과 같고, 動靜은 말과 같아서 말은 사람을 싣는 所以이요. 사람은 말을 타는 소이다. 말이 한번 나가고 한번 들어오면, 사람도 그와 함께 한 번 나가고 한번 들어온다」¹³⁾라고 하였다. 朱子가 人馬를 서술한 비유에 근거하면, 우리들은 朱子의 입장에서 理氣는 이와 같은 하나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니, 理는 홀로 發할 수 없으며, 반드시 氣에 올라타야 發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理는 모를 지기 氣로서 體를 실어야만 비로소 發할 수 있으며, 동시에 氣의 동작 정지는 理의 조종과 통제를 받는 것이며, 고삐를 늦추어 말을 믿고 따르거나, 말이 가는 대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다.

이퇴계가 주장한 「理發氣隨」, 「氣發理乘」 가운데 특히 후자는 분명히 朱子의 人馬의 비유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는 朱子의 理가 氣를 타고서 다닌다는 사상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아울러 朱子사상을 계승한 바가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퇴계의 이러한 문제에서의 사상은 朱子의 사상과 완전히 합치된 것은 아니었다. 우선 朱子의 입장에서 理氣는 단지 하나의 관계 즉 「理는 氣를 탄다」, 또는 「사람은 말을 탄다」는 관계만 있을 뿐이며, 이퇴계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氣發理乘」 이외에 理發氣隨의 관계가 있다. 만일 「氣發理乘」이 대체로 「理搭氣」에 상당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理發氣隨」과 「理搭氣」, 「風牛馬」에는 서로 미치지 못한다.

만약 또한 人馬관계를 가지고 비유한다면, 朱子의 경우에는 단지 「사람이 말을 탄다」는 관계가 있을 뿐이지만, 퇴계의 경우에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간다」(氣發理乘)는 관계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말을 끌고 간다」(理發氣隨)는 관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으로 퇴계가 말한 「氣發理乘」은 그 함의 또한 朱子의 「理搭氣」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朱子의 경우에는 理는 動靜하는 氣가 있어 動靜하는 소이가 되지만, 理搭氣는 이로 인해서 氣에 맡겨서 동작 정지하거나, 말을 믿고 가는 관계가 아

13) 上同.

니라 理는 氣에 대하여 새로운 조정과 主宰를 하고 있다. 퇴계의 「氣發理乘」은 마치 氣에다 비교적 많은 主動性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이 점은 퇴계의 “發”자에서 어렵פות이 드러나고 있다.

<四端理發氣隨七情氣發理乘說>이 비록 朱子의 사상과 약간 합치되지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朱子의 사상과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 퇴계도 더 이상 수정을 가하지 않아 <四端理發氣隨七情氣發理乘>이 드디어 이퇴계의 四端七情理論의 최후의 형식이 되었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퇴계사상이 논술되었다고 인정된 <聖學十圖> 第六圖 <心統性情圖> 下圖에서는 사단칠정에 관하여 「四端-리가 發하여 氣가 理를 따른 것이며, 七情-氣가 發하여 理가 氣를 탄 것이다」¹⁴⁾라고 標注하고 있다.

IV. 이퇴계의 理氣로써 四端七情을 分說한 이론적 의의

퇴계와 기명언의 사단칠정이 理氣로 分說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은 조선 주자학 내부의 한 차례의 논쟁이었다. 논쟁의 시작부터 퇴계는 일찍이 한 번 자기의 상대를 羅欽順의 氣學派에 편입시킨 적은 있었으나, 사실상 기명언의 사상은 결코 朱子사상의 기본입장과 근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퇴계는 비록 理氣관계 문제상에 있어서의 관점이 朱子의 관점과 약간 출입이 있긴 하지만, 기본관점은 여전히 朱學의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李·奇의 논쟁은 비록 朱學 내부의 논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朱學을 발전시키고 돌파구를 제공하여 주었다.

李·奇의 논쟁의 내용은 광범위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情」에 지나지 않으며, 이·奇的 논쟁은 「情」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陶山全書> 續內集 卷第7.

「情」은 理學의 중요한 범주로서, 이 점은 陳淳의 《北溪字義》로부터 증명할 수 있다. 《北溪字義》는 「理學範疇論」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30여개(또는 組)의 범주는 모두 理學에서 가장 중요한 범주이며, 「情」은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情」은 理學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理學의 본토인 중국에서 理學派들은 시종 그것을 특출한 위치에다 놓고 토론을 하지는 않았다. 朱子는 情에 대한 토론을 가장 많이 한 사상가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는 理氣心性에 대한 토론에 비한다면, 그의 情에 대한 토론은 미미하여 말할 만한 것이 못된다. 朱子의 情論은 心性說의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이외에 朱子는 情에 관한 논술은 다만 情과 心, 情과 性의 관계에만 국한되고 있을 뿐이다. 朱子의 입장에서 보면, 心과 情의 관계는 心이 주재하며 情을 관섭하는 것으로 「心은 性情을 管攝하며」¹⁵⁾ 「情은 性에 근본하며 心を 主宰한다」¹⁶⁾는 관점이다.

性과 情의 관계는 體用(「性은 본체이며, 그 用은 情이다」¹⁷⁾), 動靜(「靜은 性이며, 動은 情이다」¹⁸⁾)已發과 未發등의 관계이다. 「사단은 理의 發이며, 칠정은 氣가 發한다」라는 이 語錄 이외에 朱子는 情을 본체론 범주의 理氣로 똑같이 보고 직접 연결시켜 토론을 가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朱子의 경우 情과 理氣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어떠한 관계는 존재하고 있으니, 왜냐하면 心은 理氣를 합하고 理가 氣속에 떨어진 것이 性이며 心은 情을 主宰管攝하고 性이 發한 것이 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情과 理氣 사이에 연계성은 존재하지만 朱子는 직접적으로 情과 理氣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지도 않았다. 그의 입장에서는 情과 理氣는 이처럼 하나의 관계, 즉 理氣·心性·情이라는 관계로서 情과 理氣의 관계는 반드시 心性이라는 두 개의 중간매체를 통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가 있다.

15) 《朱子語類》 卷5.

16) 《朱文公文集》 卷第33, <答張敬夫>

17) 《朱文公文集》 卷第74, 孟子綱領.

18) 《朱子語類》 卷68.

李·奇의 논변은 논변은 情의 문제를 특출나게 드러냄으로써 體情學은 퇴계의 전체 사상 가운데 가장 특징이 있고, 가장 특출한 부분이 되었다. 동시에 이·奇的 논변은 또 퇴계는 주자가 간혹 말한 적이 있는 두 마디인 「사단은 理가 發한 것이요, 칠정은 氣가 發한 것이다」라는 말을 충분히 전개시켰으며, 그는 직접 情과 理氣의 관계를 探討하였으니, 즉 그 스스로가 말한 「그 향상근원을 추구하여, 사단칠정의 「所從來」를 탐구하였다. 퇴계는 情에 관한 토론을 본체론의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 그 상황은 그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性情의 논변은 先儒들의 발명이 상세하다. 오직 사단칠정을 말한 것은 단지 모두 情을 말한 것으로 아직 理氣를 分說하여 말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¹⁹⁾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퇴계가 理氣로 사단칠정을 分說한 것은 先儒들이 말하지 않은 바를 말한 것으로, 이것은 朱學에 대한 중대한 돌파구요 발전인 것이다.

주자처럼 理學을 집대성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백과사전식」인물로서 그의 지식은 해박하고 두뇌는 치밀하여, 그는 당대에 이름을 떨친 才華로 방대한 사상체계를 세웠으며, 동아시아 철학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거의 포괄시킴으로써 후세의 학자들이 그의 사상의 출발점과 사상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 없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단지 기술만 할 뿐,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理學의 본토인 중국에서 주자 이후의 理學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朱學의 출발점과 사상의 범위를 취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羅整菴의 氣學, 陳白沙, 王陽明의 心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퇴계는 오히려 朱學의 출발점과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새로운 내용을 창조하여 그 독특한 특색을 갖춘 理氣로써 사단칠정을 分說하는 사상으로 朱學을 풍부하게 하였다는 점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이라고 할 것이다.

(양 승 무 譯)

19) 《陶山全書》續內集 卷第23. 論四端七情 第一書.